

천일염 가격 치솟자... 신안염전 '소금 전쟁'

폐염전업자 9명 신규 허가 신청 염업조합원 반대... 소송전 비화

신안의 햇소금 생산이 시작된 28일 전남도에서는 때아닌 '소금 전쟁'이 벌어졌다. 폐염전에서 다시 소금을 캐겠다는 업자와 이를 막는 기존의 염업조합원이 도청을 찾아 각기 다른 주장을 쏟아냈다.

전남지역 천일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금 가격이 5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치솟아 관련 업계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 비금과 신의면의 권도초 등 주민 9명이 염전 신규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신안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 주민은 15년 전, 가격 안정화를 위해 ha당 250만원을 받고 폐쇄한 염전에 대해 신규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10년 이내에 다시 염전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허가를 다시 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안군은 가격 폭락과 대한 염업조합원들의 반발 등으로 이들의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들 주민에 맞서 대한염업조합원 200여명은 이날 행정심판이 열린 전남도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추가 허가 신청을 반대했다.

이처럼 '밤그릇 싸움'이 불거진 것은 일본 원전사태로 국내 천일염에 대한 대일본 수출이 늘어나는 등 소금의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천일염은 kg당 420원에 거래되며, 2007년 2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또 일본 원전사태가 터진 지난 2011년에는 kg당 800원~1000원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염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폐염전에 대한 추가 허가 신청을 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해 국내에서는 100만t 가량의 식용 소금이 소비되며 이중 정제염 18만t, 꽃소금 2만t, 천일염 33만t이다. 남은 47만t은 중국산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날 행정심판을 제기한 신안 주민들이 신청한 폐염전 23ha를 허가해줘도 생산량은 2300t에 불과해 가격에



단일염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 증도 태평염전은 28일 '2013년 햇소금 채염식'을 열고 본격적인 천일염 생산에 나섰다. 영광 등 천일염을 생산하는 대부분 시·군에서도 이날부터 본격적인 소금 채취작업이 시작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도 이날 행정심판에서 법적으로 이들 주민의 주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신안군은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염전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33만t으로 이 중 87%인 29만t이 전남지역

에서 생산됐다. 전남에는 986ha의 폐염전이 있으며, 이 중 896ha는 농지나 양식장으로 대부분 전환됐고, 276ha는 그냥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 수입을 늘리고, 국내산의 일본 수출도 덩달아 증가해 국내 소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폐염전 활용 방안을 고심 중

이다.

한편 이날 신안 증도에서는 천일염 생산자들이 모여 올해 첫 소금을 생산하는 '채염식'을 열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은 다른 소금보다 미세입자는 3배 많고, 나트륨은 10%가 적은 명품 소금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알림

서재필 박사 서거 62주년 추모식

광주일보와 (사)서재필 기념사업회는 근대 개혁사상가이자 언론인, 독립운동가인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박사 서거 62주년을 맞아 박사의 애국혼이 서린 보성군 문덕면 서재필 기념공원에서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광주일보사는 지난 1991년 우리 고장 보성태생인 서박사의 독립혼을 현창하기위해 보성생가 복원사업및 기념공원 조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데 이어, 미국 필라델피아 교외 남골담에 쓸쓸히 방치된 서박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을 벌여 4년만인 1994년 마침내 서박사의 출생지 보성군에 서재필 기념관을 완공하고 박사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 일시 : 4월 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서재필 기념공원
- 공동주최 : 광주일보사·(사)서재필기념사업회
- 후원 : 국가보훈처·전라남도·보성군



전남도-일선 시·군 2중 방지 시스템 필요

줄줄새는 농림사업 보조금 관리 개선방안

지금내역 실시간 확인 가능해야

농림사업 보조금 횡령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전남도의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농림 보조금 횡령과 비리를 막겠다며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감시 시스템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농림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 목적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 시설물은 시·군과 사업자가 공동 등기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방치책으로 마련한 농

림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은 일선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 현황을 입력해 누가 얼마나 지원받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복·과다 지급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 2월, 472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연회 등을 가졌지만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 일선 시·군의 수많은 농림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2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5억~10억을 들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가 저예산으로 만든 시스템은 일선 시군이 입력한 자료를 한 데 모아 문제를 찾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확한 감시를 위해서는 일선 시·군이 자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다시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한 시스템 전문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일선 시·군에는 농림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있는데,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지급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전남도의 이번 시스템은 너무 단순해 전혀 적발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보조사업 비중을 점진적 줄이는 대신 용자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임의처분이 제한됐음을 공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홍도항 방파제 입찰 전남도 가처분 승소

2순위 업체 심사 후 공사 재개

160억원대 신안 홍도항 방파제 보강 공사 입찰 과정에 불거진 계약 가처분 민사소송에서 전남도가 사실상 승소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민사부는 28일 홍도항 정비공사 적격심사 결과 탈락한 A건설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입찰차질진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A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전남도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가각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개시

일까지 유지해야 하는 만큼 입찰공고 이후 입찰일 사이에 합병한 경우라면 새로운 합병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2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마친 뒤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조속히 공사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A건설은 지난 1월 적격심사 1순위 업체로 결정됐으나 심사 과정에서 공동도급사의 합병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용도 재평가한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아 지난달 2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2015년 국제알코올연료 심포지엄 유치

광주시가 2015년 국제알코올연료 심포지엄(ISAF)을 유치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2013 ISAF에서 2015년 심포지엄 개최지로 광주시를 확정했다. 2015년 3월 개최 예정인 광주 행사에는 30개국에서 외국인 250여명을 포함,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세대 자동차 연료 분과가 주관하는 '국제 에너지 차세대 자동차 연료 컨퍼런스'도 함께 유치했다. 시는 ISAF와 컨퍼런스를 유치함에 따라 25억~30억여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시민·사회단체 "농협 본연의 자세 찾아라"

수입농산물 판매 이중성 비판

농협중앙회가 개설한 '광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수입 농수산물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광주일보 27일자 1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농협 본연의 자세를 찾아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연대회의 광주시당, 농협중앙회개척 광주시연대 등은 28일 중앙회개척 광주시연대 등은 28일 성명을 내고 "농협이 세운 센터에 수입농산물이 판매대를 점령하고 있다 면 굳이 농협이라는 간판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신토불이를 의지해서

수입산을 유통하는 농협의 이중성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바에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수입산 유통센터로 간판을 바꾸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난 27일 수입산 판매 비난이 일자 중국산 콩나물과 숙주나물 및 완두콩 등을 판매대에서 치우고 국산으로 대체했으며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민선 5기 광주시 일자리 정책 2년 연속 우수

광주시는 고용노동부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일자리목표공시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와 함께 북구와 서구도 기초단체 중 일자리정책 우수지방자치단

체로 선정돼 광주지역의 일자리 정책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일자리 목표를 설정해 매년 실행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시한 내용을 평가하는 제도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구)련던약국사거리

민속촌 메가박스 개관사은품 슈니팡 3개 구매시 영화권(2중) 버블음료 1잔 무료증정 무진주

4호점 순천 연합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6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10호점 광주 수원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대한생명 구.한미소방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82-2 대인시장 한미소방 맞은편

비로 옆으로 이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일 오전진료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할(땅두름)모목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결혼문화원

금호아파트 54, 39, 87, 160, 419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06,19,83,180,184

4,19정류소 55,98,151,518

신정입구 계림초등학교

호남직업전문학교

홀름리스 광주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